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오 현 욱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지도교수 황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오 현 옥

오현옥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주 심 철 학 박 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목 차

I . 이야기를 시작하며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 전통연구와의 말 걸기	7
1.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	7
가. 유아의 창의성	7
나. 유아의 창의성 교육	8
2. 왜 내러티브이어야 하는가?	11
가. 내러티브 탐구의 배경	12
나. 내러티브 탐구의 필요성	14
다.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15
III . 현장에 다가서기	19
1. 연구 참여자	19
2. 연구 절차	22
3. 자료 수집 및 분석	24

IV.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26
1. 창의성의 의미	26
2.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의미	37
3. 유아의 창의성 교육의 실천	49
V. 이야기를 정리하며	75
1. 요약 및 논의	75
2. 결론	79
〈참고문헌〉	80
〈부록〉	86



A Narrative Inquiry of Teacher's for Children's
Creative Education

Hyun Ok Oh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aper seeks to examine the meaning of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through teachers' narratives and to explore methods and implications of implementing creativity education.

To attain these goals, the paper established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children's creativity as thought by nursery school teachers?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as thought by nursery school teachers?

Third, how do nursery school teachers implement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Guided by these questions, the paper arrived at following implications by interpreting data gathered through narrative inquiry participated by 11 nursery school teachers.

First, children's creativity could be divided into meaning of creativity through teacher's theoretical information and meaning of creativity learned through dealing with children in nursery school, and creative children were interpreted as ones who were different from others.

Second, the paper was able to discover the meaning of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through telling the story of that the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is necessary education for children's present as well as future. Further, teachers who educate children took a significant role in creativity education, and the paper was able to discover the meaning of creativity education through interpreting that ordinary teachers view creative teachers as different teachers in multifarious ways.

Thir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teachers communicated that they plan out creativity lessons but they don't quite fully understand creativity, and thereby their feeling of difficulties. Moreover, despite their want for implementing creative lessons, teachers faced numerous difficulties due to limitation of teacher's role, the number of children to be taught, demands of manager, various events, and burdensome works. While teachers voiced their demands on expand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realistic teachers most appropriate to the site, parents and managers, and on accurately conducting research on gathering actual conditions of nursery schools and professional data about creativity appropriate for children's development, the paper was able to interpret the implication of how nursery school teachers were implementing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I. 이야기를 시작하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점요.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장이 그렇잖아요, 학부모들의 요구...그리고 지침..유치원 원장님이 바라는 것...질서..뭐 너무 이런 틀에 조금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그래서 그 틀을 많이 못꺼서...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내가 창의성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물었을 때, 노력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안은 것 같아요.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이 이야기는 교사의 내러티브 중 일부이다. 창의성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 시대에 과연 유치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사실 100점 기준으로 자신의 창의성 교육을 점수로 수치화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교사 스스로 창의성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자신을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 만족도에 나름 자신만의 평가 기준으로 수치화시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점수가 100점 기준에 30~60점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현장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해 다시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새롭고, 적절하게 일을 산출

할 수 있는 능력이다(Lubart, 1994; Sternberg & Lubart, 1991). 새로운 일이란 독창적이어서 이전의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하고 적절한 일이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창의성은 기업, 미술, 스포츠, 영화, 음악, 문학 등 모든 영역에서 추구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금 현시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창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창의성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여러 시기 가운데 유아기는 인간의 창의성 발현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전경원, 2000; Amabile, 1989; Torrance, 1976).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수연, 2003; 박나미, 2005; 정민자, 2005; Al-ajmi, 1994; Bomba & Moran, 1988; Heinzen, Mills, & Cameron, 1993; Tegano, Moran, & Sawyers, 1991). 이러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또는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창의성에 대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차미정, 1990; 최영아, 1998; Cliatt & Sherwood, 1980; Kokot & Coleman, 1997; Mark & robert, 1990; Shaw & Cliatt, 1986; Torrance, 1976)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Shaw 와 Cliatt(1986)는 창의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사고 능력이 높은 교사가 유아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Kokot와 Coleman (1997)은 예민하고 융통적인 교사가 유아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수준

은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세분화된 교사의 교육목표와 교과 영역별 시수가 있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사들보다도 유아 교사의 판단이 구체적 교수-학습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아학급에서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역할 인식은 창의성 발달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세기의 창의성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의 내용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생활습관과 전통문화, 창의성은 어느 특정영역에서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적용가능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강조하도록 구성되었다. 추구하는 인간상의 내용 중에서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목적 및 목표에서도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전통문화, 창의성을 강조하여 구성한다고 명시되었다.

특히, 제 6차 교육과정 탐구 생활의 구분이었던 ‘창의적 탐구’, ‘과학적 탐구’, ‘수학적 탐구’를 개정시안에서는 ‘탐구하는 태도 가지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감각 기르기’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제 6차에 제시되었던 ‘창의적 탐구’란 탐구 생활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서 탐구영역의 내용구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탐구 생활 영역에서는 수학, 과학관련 지식과 이해 뿐 아니라 태도와 기술이 중요하므로, 개정안에서는 ‘탐구하는 태도 가지기’를 분리하여 그 안에 창의적 탐구의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제 6, 7차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시안 비교 중 비교란에는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사의 확산적 발문을 강조하되 다양한 발문을 강조한다고 명시되어 유아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교사의 창의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강조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C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많은 창의성에 관한 자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터라 하마터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창의성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착각 할 정도이다. 유아의 창의성이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지한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유아의 창의성에 대해 알고 수업에서 또는 활동 중에 적용하여 생활하는지, 또한 적용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 보급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기껏해야 연수에서 듣거나, 직접 책을 사서 보는 경우 외에는 많은 제한점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특히,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차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래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보다도 우리 현장의 교사들의 창의성 인식 상태가 더욱 궁금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연구물이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교사의 인식이 양적연구로 조사되어 극히 정해진 틀 안에서 한정된 문항을 선택해야하므로 교사들의 개개인의 소리를 담기 힘든 제한점을 발견했었다.

연구자도 많은 창의성 연구에 관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가 있지만, 유아들의 창의성 수준이나 교사의 창의성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였고 이것 또한 귀찮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하기 싫어서 대충 체크해서 보낸 숙제에 불과했던 것을 뒤돌아보니 이 또한 양적연구의 큰 제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경력과 함께 신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유아의 창의성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와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창의성, 창의성 교육과 실천하는 과정의 의미를 찾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교사들의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이나 사회적인 삶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내러티브 탐구의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유아들에게 올바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급선무가 무엇일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사들의 창의성 교육을 저해하고 있는가? 현장의 교사들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기에 최선의 환경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의성에 대화 하고 싶어도 제한을 두고 있는 많은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유아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나아가나 갈 바를 더욱 알고 싶어서 진솔한 교사들과의 내러티브를 통해 유아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의 의미에 대해 알고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 창의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창의성

창의성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며,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해결과정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또한, 남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나 산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함께 자기 수준에서 이전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포함하는 창의성은 새롭고 변화가능하며 유용한 것이다.

나. 내러티브(narrative)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란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으로 교사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II. 전통 연구와의 말 걸기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요소인 창의성의 개념적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 시키는 열쇠와도 같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

가. 유아의 창의성

‘창의성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면, 18세기까지의 창의성은 포이에인(Poiein), 파케레(Facere), 크레아티오(Creatio) 등의 ‘무(無)에서부터의 창조’, ‘신(神)으로부터의 창조’의 의미(이용대, 1990)로 신에게만 주어졌던 ‘창조’라는 의미가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전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예술가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창의성은 특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타고난 특성으로 여겼다(Hurlork, 1981). 하지만, 현대의 창의성은 특정인물, 특정분야, 특정한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능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요 계발 가능한 것이라고 많은 연구들이(이은규, 1989; Goetz, 1981; Haddon & Lytton, 1968; Hyman, 1978; Torrance, 1973)으로 밝히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서로 일치된 견해나 정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sborn(1963)은 창의성이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며 특성으로 넓게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나 사태를 개인 스스로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으로 보았다.

Torrance(1959)는 창의성은 특정의 천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아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고 이는 교육에 의해 증진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어려움과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에서 틈을 찾아내어 빠진 요소나 잘못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러한 결함에 대해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 그 추측과 가설을 평가하고 검증하며 이것을 재수정하고 또 재검증하여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구성요소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들 수 있다.

Guilford(1970)는 창의성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 즉 새로운 사고를 생산해 내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Guilford는 인간의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두 양식으로 구분하고 창의적 산물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발산적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창의적 사고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재정의 및 재구성력으로 보았다.

이은화(1995)는 창의성은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하는 능력의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확산적인 사고를 내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창의성의 개념은 새롭고 변화가능하며 유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예전에 인지적으로 뛰어난 천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유아기의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유아의 창의성 교육

창의성 증진에 있어서 유아기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창의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Torrance(196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시절 중에서도 4세에서 4세 반 정도까지 유아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5세가 될 때 쯤 점점 떨어진다고 하였다.

Hallman(1964)은 모든 유아가 창의성을 지니는 특성으로 보고,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창의적 능력을 모든 유아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학교교육에서도 창의성 개발 교육이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모든 유아가 가지고 있고 또한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창의성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Starkweather(1971)는 영아 때부터 창의성 교육을 해야 하고, 만 5세가 되면 이미 늦다고 했으며, Meeker(1978)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에 따른 탐구학습을 많이 하는 유아들이 제한적으로 행동하고 교사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하는 학령기 아동에 비해 창의성 교육을 실시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발달적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아기는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각자의 삶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유아기의 창의성 발달은 자율적이고 풍부한 환경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유아기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전경원, 1995).

유아기가 창의성 교육의 결정기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있어서 본보기의 대상이자 중요한 인적환경이 되는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단 유아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려면 교사가 먼저 창의성이란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정립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 이론이 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실제라는 것을 세우기 힘들다. 근본이 되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이론이라는 것이 교사들에게 탄탄히 서 있을 때

만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창의성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사가 창의성에 대해 무지하다면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창의성이 좌지우지 될 염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교사의 행동이나 사고는 보는 그대로 수용하는 유아의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유아교사는 유아와 생활하면서 교육의 기회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게 되며 관찰자, 연출자, 촉진자,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고은희, 2003).

첫째, 교사가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창의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사는 유아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유아들의 생각이나 행동, 활동의 산물들이 주어진 학습주제와 일치하지 않아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일단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나 필요한 조건이겠지만 수업시간의 분위기는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고와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패배감 또는 상실감을 맛보지 않고 자유롭고 자아 존중감으로 인한 창의적인 사고가 촉진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영희(1995)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유아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 볼 수 있는 풍부한 감각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내외의 물리적 환경구성 역시 유아들의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전시해주거나, 항상 틀에 박히거나 지정된 곳이 아니라 좀 더 독특하거나 색다른 장소의 게시 등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이해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창의성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창의성의 증진을 위하여 환경구성과 함께 자유롭고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왜 내러티브이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은 이야기되는 삶을 이끄는, 이야기하는 유기체”(Connelly & Clandinin, 1990)이며, 우리는 ‘이야기하기(story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의 사용이 요구된다(Gunn, 1982).

신옥순(1996)은 내러티브 탐구란 경험에 대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해 나가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새로이 추구해나가는 하나의 내러티브 사고의 과정이라고 했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것은 특정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뤄지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협동연구이다. 연구자는 현장의 이러한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탐구를 진행해 나가며, 결과적으로 그 탐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가고, 말하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말하는 가운데 끝나게 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체험되고 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Clandinin & Connelly, 2000).

우리가 진정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그 유아에 대한 이해에 앞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교사들이 유아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 내러티브 탐구의 배경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시작은 Aristoteles의 『시학』과 Augustinus의 『참회록』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문학 분야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Connelly & Clandinin, 1990).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내러티브는 다양한 학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Dewey(1938)는 “인간의 삶, 교육, 그리고 경험이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며 삶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Dewey의 영향을 받아 내러티브 탐구는 Clandinin과 Connelly에 의해서 지난 20여 년간 교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킨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문학이론, 역사학, 인류학, 드라마, 미술, 영화, 신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교육학을 위시하여 심지어 진화론적 생물학에서조차 내러티브론(narratology)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Clandinin & Connelly, 1990). 많은 관련 분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유아와 관련된 내러티브 관련 자료를 보면, 유아들과의 교실 상호작용을 이야기로 엮은 Paley의 저서들(Paley, 1981; 1986a; 1988; 1990; 1992)과 유아교사의 역할을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사랑으로 가르치기』(Goldstein, 1997)등이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에서 내러티브의 중요성과 내러티브 탐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염지숙, 1999).

Clandinin과 Connelly는 인간은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 즉,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가며, 지식을 구체적이고 내러티브적이며 관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1994). 따라서 이들에게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아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런 관계속으로 들어가서,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탐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이야기(telling) 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 (retelling) 하는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 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Phlkinghorne(1988)은 내러티브를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 도식(organizational scheme)이라고 하였다. 그는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의 인지적 도식, 과정의 결과를 의미하며 각각은 이야기 설

화, 역사로도 불린다. Phlkinghorne(1988)은 이야기(story)를 일반적으로 모든 내러티브 산물로 규정하며, 이야기를 내러티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Clandinin과 Connelly(1991)는 ‘이야기’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라 보고 ‘내러티브’란 긴 시간에 걸쳐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일한 현상을 언급할 때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탐구의 방법을 언급할 때는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따라서, Clandinin과 Connelly에게 있어서 내러티브는 연구 대상의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탐구 패턴까지를 의미하고, 내러티브 탐구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한 것이다(염지숙, 1999).

나. 내러티브 탐구의 필요성

인간이 존재한 이후에 이야기도 존재했을 거라는 이유로 내러티브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Barthes(1966)는 내러티브가 어느 장소,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내러티브 없이 인간은 결코 조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Bruner(1986)는 대부분의 교육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논리-과학적 사고와 대비하여 내러티브 사고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내러티브 양식은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최대의 관심이 있으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결론짓는다.

MacIntyre(1981), Phlkinghorne(1988), Clandinin 과 Connelly(1991)와 같은 학자들도 그들의 연구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로 살아가며, 내러티브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이야기’ 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구였으며, 현재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이야기하고 ‘다시이야기하기’ 하는 동안 항상 우리는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 상황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지지해줌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 지 제시해준다(Carr, 1986; Mattingly, 1991).

앞에서 말했듯이, 내러티브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내러티브가 우리 삶의 구조와 세상의 구조를 해석하고 밝히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내러티브는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인간과 관련된 다른 여러 학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염지숙, 2003).

다.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 시 각 단계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Clandinin과 Connelly (2000)는 탐구의 과정을 편의상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와 단계가 서로 겹치고 중복되기도 한다.

(1) 현장에 들어가기 :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이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하고,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의 참여자들과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염지숙, 2003). 이처럼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건과 내용, 관심분야의 근원을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자서전적인 경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를 할 때는 다른 질적 연구에서보다도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와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대한 협의, 현장을 언제 떠날 것인가에 대한 협의, 서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협의는 연구 전 과정을 통해 계속되며, 연구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되고 수정 될 수 있다(염지숙, 2003).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이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며 현장 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염지숙, 2003). 현장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이에 갈등을 가질 수 있기에 연구자는 연구 현장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이러한 긴장을 경험한다. 그들은 완전히 개입해야하고, 연구 참여자와 “사랑에 빠져야만” 하지만, 또한 한 걸음 물러나 연구 속에 있는 본인의 이야기 및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탐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살고 있는 더 커다란 전경을 바라보아야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러한 관계는 연구자는 참여자의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참여시 그들의 생각과 느낌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록도 요하지만, 나아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는 자료로 간주되며 생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 텍스트에 해석을 가미 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내러티브 탐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현장 텍스트가 있다. 교사들의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쓰기, 현장 노트, 편지, 대화, 인터뷰, 가정사(family

story), 문서, 사진, 기억상자, 기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가공물, 그리고 삶의 경험들의 활용 등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 현장 텍스트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사건을 말하며,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협력한 자료이다(Clandinin & Connelly, 1994). 이러한 현장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와 현장 텍스트가 구성될 연구 텍스트의 인식론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자신의 현장 텍스트를 어떤 방향으로 관찰시킬지 잘 고려해야 한다.

(4)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 :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행이므로, 초보 내러티브 탐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중의 하나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자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연구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justification),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현상(phenomena)과 이론적은 측면, 실제적인 현장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 해석과 분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방법(method)적인 3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단편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우리 삶처럼 내러티브도 조각 조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5)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다. 한편으로 현장을 떠난다는 긴장과, 수많은 현장 텍스트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초조감과 관련된 긴장, 또 한편으로 청중을 생각하게 되는 긴장과 텍스트가 독자에게 과연 말을 걸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말을 걸지 등과 관련된 긴

장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 단계에서는 현장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독자들이 이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내러티브 탐구자는 목소리(voice), 서명(signature), 독자(audience)등의 세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층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단층적인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표현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염지숙, 2003). 또한 서명은 목소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구 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연구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로 연구자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연구 텍스트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게 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너무 참여자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물을 읽을 독자를 잘 고려하여 이 연구가 독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Ⅲ. 현장에 다가서기

본 연구는 일반 유치원 교사들이 평소의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유아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미와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Connelly와 Clandinin(199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구술과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자 선정 시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권미숙, 2004).

이에 연구자는 3년 이하의 경력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년 이상의 유치원 현장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유아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창의성 관련 연수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때 공립 교사 연수 모임을 통해 유아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게 된 교사들, 창의성 교육을 최우선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유치원의 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에서 유아 창의성 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과 연구자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평소 창의성 교육에 대해 나름 노력하는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

에 참여하겠다는 동의하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나.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약 3년 이상 13년 이하의 공립유치원 교사 6명과 사립유치원 교사 5명의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과 함께 인터뷰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배경의 내용은 다음의 < 표 1 > 과 같다.

< 표 1 >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교육경력	현재 담임 유아 연령	근무기관 (유치원)	비고
박미소	3년	만 5세	공립	공립단설유치원에 첫 발령 받아서 3년째 근무하고 있음.
신사랑	3년	만 3세	사립	현재 창의성과 관련된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이곳에서 이직 없이 3년 동안 근무하고 있음.
서은정	4년 10개월	만 5세	공립	사립유치원 경력 3년에 공립 1년 10개월 경력임.
이마음	5년	만 5세	사립	현재 대학 부속유치원에 근무하고, 올 1월에 1급 정교사 이수함
강조용	5년	만 5세	사립	현재 절(사찰)부속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유치원에서는 최고경력이 되는 교사로 올 1월에 1급 정교사 이수함.
김빛나	5년	만 4세	사립	고경력의 교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올 1월에 1급 정교사 이수함.

최아름	7년 11개월	혼합연령	공립	사립유치원 경력 3년에 공립으로 발령받았으며, 공립에서는 한 학급 혼합연령만 맡고 있으며,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임.
김앞새	7년 11개월	만 5세	사립	6학급의 유치원에서 이직 없이 8년을 근무하고,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임.
김우정	9년	만 5세	공립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병설유치원 근무 4년에 이어 현재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오수정	12년	만 5세	공립	사립유치원, 타시도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서 12년을 근무하고 현재 3학급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박평은	13년	만 5세	공립	사립유치원에서 7년을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수업연구대회 1등급을 받았으며, 단설유치원에서 5년 근무함.

*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임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단계 중에서 2, 3단계를 통합하여 전체 4단계로 연구 하였는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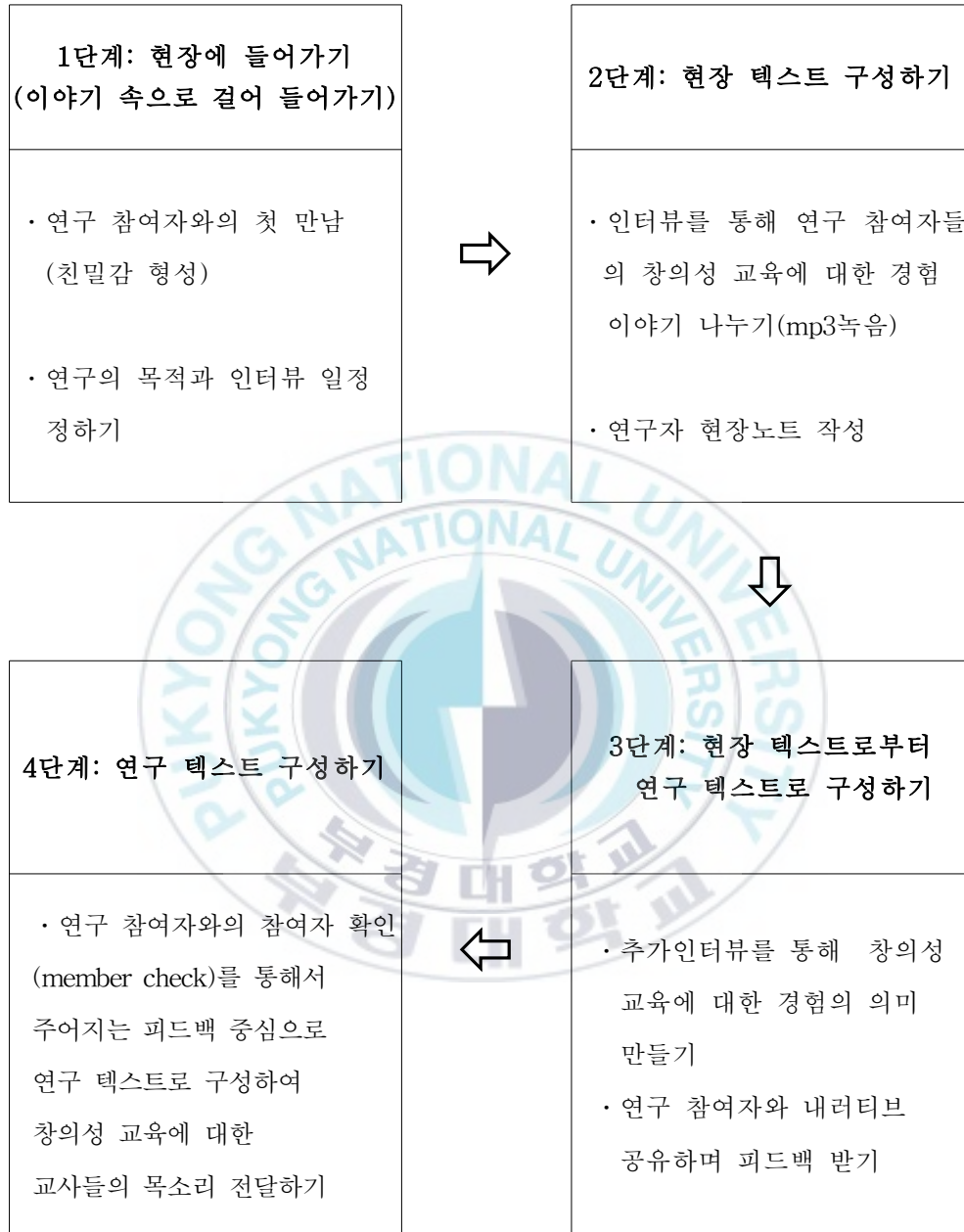
1단계로는 현장에 들어가기(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단계로 연구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2단계로는 현장 텍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녹음하고 현장노트에 중심 단어를 기록한 후,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고 현장에서 기록한 노트의 중심단어를 보면서 현장 텍스트로 작성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창의성, 창의성 교육과 실천과정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창의성 교육 경험의 의미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묶으면서 이야기를 재조직하였다. 이러한 현장 텍스트를 읽고 또 읽으면서 현장의 경험을 전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3단계로는 현장텍스트를 연구현장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으로 앞서 준비한 현장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며 참여자 확인(member check)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다.

4단계는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에게 받은 피드백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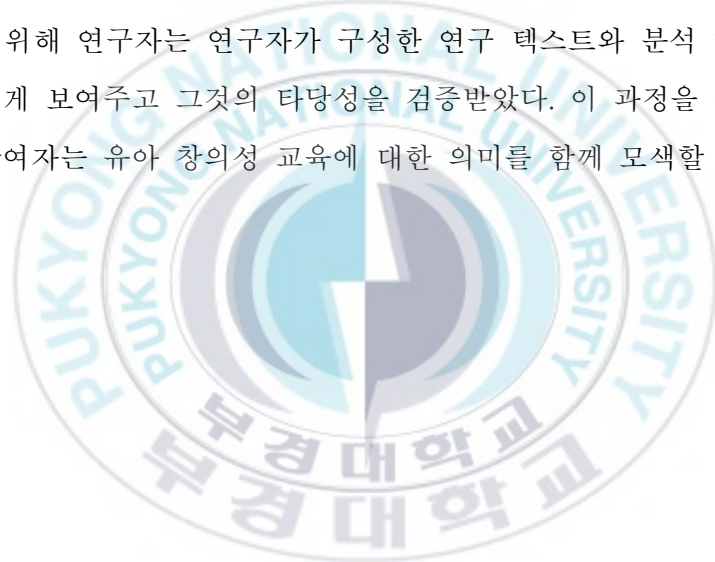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12월에 현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제, 목적, 및 연구절차 등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연구에 대한 소개 및 과정과 참여자의 참여의사를 나누면서 동의를 얻었고,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과 스케줄이 여유로운 시간에 맞추어 날짜를 정하였다. 교사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유치원이 방학하는 2008년 1~2월에 대부분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한 교사 당 2~3회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만남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첫 인터뷰 이후 1-2주 이내 추가 인터뷰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와 교직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레포를 형성한 후, 유아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교사의 사고와 경험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MP3에 녹음한 후 전사한 것과 인터뷰 때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교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여 현장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심층 면담한 자료를 토대로 전사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줄거리, 주제별로 코딩한 후 그것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리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맵으로 조직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제어를 찾고 추가 인터뷰와 전자메일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창의성 교육의 경험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1회적인 작업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는 나선형적인 형식 속에

이루어졌다. 연구 텍스트를 작성할 때 참여자들과의 협의는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이야기로부터 연구자는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연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교사들의 개인 윤리적인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였다. 앞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 및 대상 아동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가 구성한 연구 텍스트와 분석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



IV.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현 시대는 창의성 교육이 너무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니 만큼 교실 현장에서 직접 수업하는 일선 교사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아무리 창의성에 대한 이론이 좋아도 그 이론이 현장에서 활용되어 지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보는 참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교육을 경험한 11명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의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것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의 요구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즉 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고자한다.

1. 창의성의 의미

가. 유아 창의성의 의미 알기

(1) 유아 창의성 의미 하나: 내 머릿속의 창의성

21세기는 마치 “창의성의 시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교사들이 창의성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이다. 교사가 모름지기 창의성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유아 창의성에 대해 평소 느

긴 점을 이야기 해달라는 서두의 물음에 대부분이 거의 수없이 들어 왔던 창의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창의성 연수를 들을 때는 유치원으로 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유치원으로 오면서부터 기본적인 정의, 개념들이 헛갈리기 시작한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 개념이나 특징들로 하여금 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정확한 정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론의 확립으로 인해 창의성의 의미 자체가 모호하게 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창의성이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단어를 보면서도 설명하고 정의내리기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창의성인 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창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접하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민감해지기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 아이들에게 왕따 당할 행동을 하는 아이 등으로 낙인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연구자 자신도 창의성에 대해 의미를 물어본다면 딱히 꼬집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교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적어도 학부 때 창의성 관련 과목을 수강했거나, 창의성과 관련된 연수를 들었으므로 인해서 창의성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수업에도 노력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어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진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인지라 그들 나름대로 창의성에 대해 들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창의성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독특함... 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독특하게 생각하고 또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김익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먼저 아이들이 작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민감하게 다른 시각으로 남보다 독특하게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각에서 발상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관심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서온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현 시대는 ‘왜 이렇게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것일까? 창의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주위에서 찾아보는 창의적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거의가 공통적으로 유창성이 뛰어나거나, 매사에 독창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정교성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감성을 가지거나 어떤 일에도 용통성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창의성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쉽겠지...예를 들어 “하늘”이라는 단어를 주었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이야기하듯이, 참여자들도 “유아 창의성”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막 떠오른 단어를 나열하기도 하고, 개념을 넣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유아 창의성에 대해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성 발달, 자기 만족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사고력 신장, 똑똑하게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유아 창의성 의미 둘: 아이들을 통해 알아가는 창의성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창의성보다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인 배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실제 경험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 걸맞게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창의성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했다. 아마 그 의미 안에는 ‘과연 이런 것을 창의성이라고 말해도 될지 잘 모르겠다’는 듯이. 솔직히 인터뷰를 하

면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별 회한한 것이 다 창의성이라고 하는구나!’ 하며 내심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인터뷰한 자료를 전사하면서 준비한 현장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왜 참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참여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오히려 연구자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내러티브의 묘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신사랑 교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창의성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제가 경험해 보면서 느낀 창의성은 아이들과 저하고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이들과 부모님과 대화..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리자면 창의성은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해요(신사랑의 이야기, 2008년 2월 12일).

신사랑 교사의 경력은 3년이지만, 자기만의 창의적인 한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 그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신사랑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회사에 안가는 토요일은 아이와 함께 컴퓨터를 통해 여행지를 정하고, 교통수단도 정해서 함께 여행을 가기도하고, 엄마는 주전자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눈, 코, 입 등을 붙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뒤로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창의력 자체가 “대화”였음을 알고 자기는 창의성은 질문과 대답이라고 나름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보면 유별나게 놀이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다. 교사

에게 매달려서 이것 저것 해달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교실에 있는 물건을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가 있는데, 이때 창의적인 아이는 가작화해서 기발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참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김우정 교사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름 창의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름 창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창의성은 한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여러 가지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지내려면 사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지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김우정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자꾸 다음에 대한 이야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띄우기도 했다. 이제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창의성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을까? 김빛나 교사는 아이들 모두에게 잠재된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있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가 창의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냥 창의성이라고 하면 사실 그 말이 어렵지. 그냥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다.....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창의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입에서 나오고 아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창의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창의성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의 창의성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은 교사 혼자서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놓친 이야기들이 많아서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렇듯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해 알아가는 창의성을 연구하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부분의 창의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 위에 세워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성의 발달, 자기 만족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사고력 신장, 똑똑하게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힘 등으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경험을 되살리면서 자기반에서 보았던 창의적인 아이를 거울로 삼아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과 유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그 자체와 모든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유아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이 창의성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고, 똑같은 창의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때로는 이것 또한 창의성이 될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과 유치원에서 반 아이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전의 창의성의 의미를 알아가는 초석의 과정을 잘 다듬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창의적인 아이: 같은 상황에서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창의성을 재발견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유치원에서 많은 아이들의 생활 하는 모습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의 행동은 분명히 눈에 띄일 것이고 특별한 행동을 분명히 보였을 것이다.

“선생님! 우리반에 우민이*가 벌써 시계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숫자를 벌써 1부터 100까지 쓸 줄 아는 거 있죠? 우민이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과는 남달리 숫자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 인가봐요” 라며 작년 만 3세를 맡고 있던 동료 교사가 교무실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연구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의 이야기는 다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창의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참여자들이 말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창의적인 아이는 모든 영역에서 남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말하기나 쓰기를 통한 언어 영역과 만들고 꾸미고 그림 그리는 조형영역과 그리고 신체를 이용한 표현 방법에서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각 분야에서 남달리 뛰어난 부분을 보였다고 한다.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주장을 잘 펼치거든요. 그리고 낙서를 해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뜻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담겨있어요. 질문 안하고 그냥 보면 낙서 같은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왜 이렇게 그렸고, 왜 그렇고, 왜 이 그림을 생각했고 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 교사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함.

그 아이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요. 다른 아이는 그냥 아무데나 그리면 자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독수리고 독수리 발톱이고 갑자기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봤는데 생각이 나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신사랑의 이야기, 2008년 2월 12일).

위와 같이 끊임없는 낙서와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아이도 있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독특한 언어적 표현, 그림, 성향을 드러내는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해도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아이, 남과 다른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공, 언어, 신체를 이용한 표현에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계획하고 방법을 연구하여 실천하고 다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아이들에게 의도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수업시간에도 의도한 방향으로 나 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교사 나름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을 예상하며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가끔은 그 예상과 달리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업을 할 때도 교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을 하거나, 교사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보이기도 한다. 주제를 전개하면서도 아이들을 통해 교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재발견 시켜주는 경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일까?’ 다른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다.

내가 수업을 사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방향으로 안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 창의적인 아이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아이가 이끄네?’ 이런 아이들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더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제가 의도한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더 즐겁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교사가 의도한 수업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교사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지시켰다거나 나무랐다면 그 아이는 교사로 하여금 느끼는 수모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다른 일에도 먼저 두려움을 안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 아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아이를 수용해주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교사로 인하여 아이의 창의성이 한층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남과 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특징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 속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는 다 같이 산책을 가거나 똑같은 그림이나 사물을 보여 주었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그만 것에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거나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창의적인 아이들의 눈에는 참 많은 것이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독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야외 뿐 아니라 똑같은 교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아도 창의성을 느낄 수 있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한다.

제가 생각할 때 창의적이라는 아이들은 다 같이 산책을 간다거나 사물을 보여주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도 조그만 것에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발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다 비슷비슷한 생각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데 혼자서 독특하게 생각해서 새로운 그림이 나온다

거나 그런 아이를 볼 때 ‘참 창의적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서온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하지만, 자칫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서로 남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우를 하셨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이가 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남과 다른 부분을 찾아낸 아이들과 찾지 못한 아이들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와 덜 창의적인 아이들로 구분 짓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남과 다른 모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좀 더 똑똑하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반에 은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많이 늦거든요. 모든지 다 늦어요. 밥 먹는 것도 느리고, 활동하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부산하기까지 하거든요. 막 쳐다보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아이가 참 괜찮아 보일 때가 언제냐면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듬감을 아주 잘 타거든요. 음악이 나왔을 때 몸을 흔든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멍뭉해 있고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은정이 같은 경우에는 막 신나게 흔들어요. 그런데 그게 음악에 맞단 말이에요. 박자에 맞는 것을 볼 때 ‘아 저 아이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이구나!’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한 쪽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똑똑함이 아니라 학습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음악성이라든지 수학적 부분, 아니면 과학적인 부분, 아니면 그런 다양한 부분들... 만들기에서 조금 더 뛰어난 아이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창의성이 아닐까요? (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김빛나 교사가 말한 것처럼 은정이라는 아이가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생활에는 느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분명 남과 다른 특별한 분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곰곰이 유치원의 이들을 떠올려 보면 모든 부분에 우수한 아이들은 없다. 찾아보면 분명 한 아이마다의 개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개성과 연관 지어서 개인적으로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남과 다른 특별한 부분을 보면 그 영역을 잘 수행하는 아이들이 그 분야의 창의성을 지닌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잘하는 아이, 수업을 즐겁게 이끌어가는 아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독특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아이, 부분적이지만 각 영역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 등을 각자 창의적인 아이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보니 이 모든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신체, 언어, 놀이 어떠한 상황이나 분야에서든 다른 아이와 다르게 유별나게 눈에 띄어서 남과 달라 보이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로 그 의미가 해석되어졌다. 남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행동했는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지만 아이를 잘 관찰해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명 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자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남과 다른 아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성은 특정한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타고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교사들이 얼마만큼 잘 이끌어주느냐에 달린 몫을 생각해보면 유치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하였다.

2.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의미

가.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의미 알기

(1) 유아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하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위해!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지 기대하면서 공부시키고,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금 모두 부모와 교사로서 아이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가진 위치라면 누구든지 눈을 크게 뜨고 아이의 먼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아이에게 투자한다. 그런데,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보장되지 못한 삶에서 과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들이 미래를 멀리 내다 볼 여유가 있을까?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금 현재의 순간의 초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해야 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잘 안정 될 때 누려지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창의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뭐랄까..행복하게살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재미있게 지내 그냥 틀에 박힌 것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같은 것을 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지내는 것도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는 아무래도 뭔가 자기생활에 뭔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김우정 교사는 창의성 교육은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아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얼마나 신장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발판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유아들의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행복하게 느끼고 편리함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창의성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유아들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일 것이다.

컴퓨터는 바로 정답을 말해준다면 아이들은 교사가 실천하는 창의성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게 되면서 언어발달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친구관계도 사회성도 발달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창의성 교육이 가져오는 파장은 현재의 개인적인 삶을 바탕으로 어찌면 누적적으로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창의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 같아요. (김잎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전에 같으면 그거잖아요... 주입식,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교사는 무조건 말을 많이 하고 아이들은 ‘네, 아니오’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엄마들이 창의성 교육을 하면 아이들 머리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창의성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창의성 교육이 그냥 통틀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발달하는데 그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성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아, 내가 이거 하나를 성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아이들이 해서 만족을 하니까 ‘아, 나 이것도 하고 싶어.’ 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 그래 너 잘했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더 생각을 하려고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지금 시대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의성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비롯하여 아직도 틀에 박힌 것들이 많다. 창의성에 대한 교육이 TV나 아니면 그런 언론 매체, 책 또한 아이들이 접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사고한다기보다는 어른들에 의해서 조금 강압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는 점점 더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함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으니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력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성 교육은 미래를 위함과 아울러서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급변하는 현재 사회에서 미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래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자기 PR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끼는 점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창의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실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창의성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는 사고의 확산과 반성적 사고의 문제와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성 발달,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자기 성취감,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됨을 알 수 있다.

(2) 유아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1 최아름 교사와 레포를 형성 하면서 보니 중학교 선후배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함께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며 걸었던 길과 학교 교정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그리고 인근 주위의 남자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과 여러 가지 소문의 진상...참으로 중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말씀 하신 것이 생각났다. 지금 현재 나를 낳은 엄마의 나이가 되고 보니,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 시절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교정을 떠난 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니 정말 ‘세월이 살과 같다’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최아름 교사와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 유치원의 교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 누가 신경을 써줬던가? 를 기점으로 생각해보니, 그때는 다 같이 동등하게 창의성 교육에 신경 쓸 시대가 아니었다고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역으로 그 때 누군가가 깨여 있는 선구자적인 부모나 스승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창의성 교육을 해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금처럼 유치

원 교사로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서로 그냥 씩씩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가정이나 유치원이나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 아이들은 머지않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나중 어른이 되고나서 자신의 위치에 서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가 창의적인 교육의 혜택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아이를 지도했던 교사가 그 아이의 창의성 교육에 문을 두드리고 노력한 끝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노라고 자랑 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직업들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세분화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들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직업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 더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식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창의성 교육을 시켜주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보다 다양화되고 조금 새로운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이 커서 미래에 진로... 직업에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고 한 시간 전과 한 시간 후가 다른데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해내고 발상해 내야 되고 현대 아이들이 그 사회를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각해 내서 발전해야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창의성 교육이 성실히 실시된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타인의 생각도 받아들여 사회성이 길러지고, 유아 내부의 자부심과 사고가 증진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스스로가 편리한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이든 민감함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 탐구하는 능력이 신장되며 학습효과가 두드러지고 자기주장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어느덧 미래 사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되어 질 것이다.

일단 교육 과정 상에서 국가적인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가장 그.. 마지막에 ‘창의적인 아이로 키운다.’라고 나오니까 모두들 다 ‘아, 그게 중요하구나!’하고 느끼는 바고 그리고 그냥 몸으로 현장에서 느끼면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네, 네.”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하나 했을 때 “이건 어때요?”하고 다른 생각을 꺼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만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더 이제 그런... 음... 바르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 뭐라 할까... 사회에 더 발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의성이 중요하구나! 꼭 필요하구나!’하고 느낍니다(강조용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창의성 교육은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임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오수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강조용 교사는 지금 임용공부를 준비하면서 유치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인지 나름 유치원 교육과정과 접목해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미래를 위해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정 교사는 어릴 때의 창의성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주관하게 되므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와 직결된 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자라서 창의력으로 준비된 기량을 마음껏 활용한다면 우리 국가가 선진 국가 대열에서 멋지게 자리 잡고 있을 미래 사회를 생각해보며 흐뭇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 창의적인 교사: 다방면에서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사

신수정 교사는 앞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반의 창의적인 아이의 부모님을 이야기했다. 그때 그 부모님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주’ 단원의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날 바로 김해 천문대에 가서 별자를 보고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평은 교사는 13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창의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게... 증진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또는 표준화된 어떤 방식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진되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나 활동을 제공해 보면 초창기에 아이들이 물론 발달상의 측면 때문에 그렇게 변화 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초창기에 제공했을 때와 연말에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확연하게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구나... 또는 친구들 간에 협의하여서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있어서도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교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기에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지만...제 눈에는 창의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네요(박평은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아주 솔직한 표현의 이야기이다. 창의성을 수치화 시키지 못할 바엔 어쨌든 교사의 주관적인 차원으로 창의적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듯 아이가 창의적으로 보이는 그 뒤에는 부모이든 교사의 노력이 숨어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창이성이라 할지라도 아이 혼자서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유아의 창의성에 미

치는 유아의 창의성과 관련된 많은 변인 중에서도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상관관계가 있다 (김계영, 1998: 차미정, 1990)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적인 교사는 먼저 자신이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육 활동 구성 및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사 역할을 바르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부모 아래 훌륭한 자녀가 존재하고,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탄생한다는 말처럼 창의적인 아이들을 키우려면 교사 스스로가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교사가 창의적으로 보이는지 자신과 동료 교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이들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타고난 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고 보면 피아노 잘 치는 교사, 사회성이 뛰어난 교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교사 등 참 많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교사는 다른 교사와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 구성을 잘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였다.

창의적인 교사의 교실환경을 보면 주로 아이들의 작품을 교사가 가장 돋보이도록 전시해 주는 것은 맞는데... 항상 지정된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 달거나 바닥에 붙이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한 활동에 아이들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창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일을 같이 하다보면 같은 자료를 보고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뭐...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만들기를 할 때도 그 재료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는데 그것 말고 새롭게 그것을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아, 창의적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강조용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창의적인 교사들은 창의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의 심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심리적인 환경 조성, 아이들은 환경 구성을 통해 눈으로 보고 만지므로 창의성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박미소 교사의 이야기처럼 교사가 있는 그대로 늘 하던 대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성된 환경조성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작품만을 환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흥미나 호기심 그리고 발달 정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연구대회를 하거나 유치원 행사가 있는 경우면 그 유치원에 카메라를 꼭 들고 간다. 그 이유는 그 유치원의 환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면서 각 교실을 둘러보면, 수업을 보지 못하는 이상 환경으로서 그 교사의 창의성을 평가하게 된다.

다른 유치원을 가서 각 반을 둘러보면 정말 창의적인 교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과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을 멋지게 꾸며놓을까? 교실의 배치를 이렇게 하면 참 넓어 보이는구나..참 좋은 아이디어다..등 그리고 보면, 제사 사립유치원에 근무할 때 우리 유치원의 원장, 원감 선생님도 우리 교사들의 교실 환경 구성만 봐도 교사의 생활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다른 유치원을 가보면 가볼 수록...초등은 그렇잖아요...환경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유치원 교사만큼 창의적인 교사들이 많은 곳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봐요(서온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서온정 교사의 이야기처럼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니깐 교사의 창의성에 대해 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환경은 참

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실의 환경 구성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 반의 분위기나 아이들의 상태를 대략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고 원장, 원감 선생님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잣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교사라면 교실 환경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교실내 공간의 물리적 배치가 아이들의 탐구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교사의 창의성을 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환경을 보다 창의적인 환경의 장으로 열어주는 교사를 창의적이라고 했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은 교사의 언행을 통해 조성될 수 있으며,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행동을 격려해 주는 교사의 태도로 조성될 수도 있다.

한 교실에는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며 조용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툭툭 튀고 끼어들고, 남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생활하기에 참 편하기에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로 낙인되며 후자의 경우는 말 안 듣는 우리 반의 문제 아이로 낙인 시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아이로 인해 교사들은 유치원 생활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이를 야단치기 일쑤이다. 이런 아이들은 다시 돌아보면 창의성과는 다르게 교사들로 하여금 오히려 상처 받은 아이들의 행동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히려 낙인 시킨 그 문제 아이를 교사가 더 키운 샘이 되므로 교사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아이가 이야기 했을 때 반사되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에게 수용적인 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가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기에는 교사의 인성적인 요인도 무시하긴 어렵지만,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

무래도 창의적인 교사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창의적인 호기심의 행동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많이 수용해 준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교사? 어떤 문제에 다 해결해주는 교사? 아이들을 수용해주는 교사는 어떠한지 이야기해보았다.

창의적인 교사는 우선은...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는... 수용할 줄 아는 교사가 창의적인 교사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들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 분위기가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막 손들고 딱 “뭘 뭐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고 어느 정도 수용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시키는 교사들이 창의적인 교사가 아닐까요(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으로 보이는 교사는 일단 수용적인 교사예요. 수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다 받아준다는 것보다...그러니까 교사가 뭐든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예요. 이런 교사들이 주로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말... 질문을 잘 하는 교사... 확장적 질문, 확산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사예요. 수용할 줄 아니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가 사실 그런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조형 활동 같은 것이 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모든지 다 틀에 박혀 있어요.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 교사. 그런 정말 교사가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교사... 그런 것 같아요(김잎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창의적인 아이의 특징이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창의적인 교사도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창의적인

아이가 수업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교사는 아무래도 다른 교사와 달리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달리 환경을 구성하는 교사처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남달리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보면 창의적이다 못해 부럽기까지 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오늘 우리 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아, 선생님이 수업을 그렇게 재미있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런 기회를 준 교사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선생님이 그거 참 재미있네요. 아,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 그 선생님이 ‘참 창의적으로 했구나!’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닌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아, 저 선생님 참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창의적인 교사는 수업을 조직 할 때 아이들에게 독창성을 요구하듯이 교사 자체도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롭고 신선한 방법을 적용해 보거나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미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교사의 모습을 통해 남과 다른 창의적인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다.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똑같은 재료로 맛나게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똑같은 수업을 보다 맛깔스럽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 또한 교사의 능력 가운데 숨겨진 창의성 때문 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창의적인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는 교사, 평범한 학습 자료를 아이들 수준을 고려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교사, 아이들을 위해 확산적인 발문을 하는 교사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교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수용해줄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해 보았다.

3. 유아 창의성 교육의 실천

참여자들은 한 결 같이 창의성에 대해 어렵게 느껴진다고 서두에 말한 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갔다. 하지만, 경험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창의성과 실천하는 창의성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성이 생기기도 했다. 연구자도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을 가진 엄마이자 교사지만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도록 노력은 했지만, 노력에 비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참여자 모두가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계획에서 평가까지 살펴보면서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지 알아보았다.

가. 준비하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수업이든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획을 해야 한다. 창의성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의도한 계획을 첨가해서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창의성 교육을 계획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김우정 교사가 창의성을 워낙 중요시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창의적인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안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무지 속의 무지로 남겨진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내가 창의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냥 막연히 창의성이 라고 할 때는 내가 많이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 21세기 창의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막상 되뇌는 것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창의성 수업에 대한 계획 세우기조차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의 무지로 인해 오히려 더 창의성이 말살 되는 건 아닌지(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김우정 교사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기에 이는 사전 계획에 앞서서 교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 교사 스스로가 창의성에 대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 생각해 보게 된다. 자신이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려면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인식하고 준비해서 가는지 또한 그 사전 지식의 옳고 그른 판단을 과연 누가 해주느냐는 것이다.

김우정 교사는 이어서 또 계획하기 전의 어려움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우리가 수업시간을 마치면... 사실을 그 다음날 수업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금방 똑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안을 쓸 때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리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안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물 같은 것... 할 수 있는 제일 그 수업을 잘 풀어 갈 수 있는 준비물을,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5시까지가 근무라고 하지만... 그 5시 안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수업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들어갈 경우가 사실

은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 창의성을 위해서 물론 창의성이라는 것이 하나가지고 블록 하나가지고도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구나 여기가 단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와 다르게... 가외가 많으니까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김우정 교사는 경력이 9년이 된 교사로 컴퓨터 작업 능력이 뛰어난 관계로 자신의 유치원 일 이외에도 교육청 관계의 일도 많이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렇다보면, 수업적인 면보다 유치원 행사와 교육청 자료까지 만들어 내려면 남들보다 배의 시간이 투자 되어지므로 나름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준비도 못한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 연구의 이야기 시작을 할 때 김윽새 교사가 자신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점수를 30점이라고 했다. 자신의 점수를 수치화 시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점수를 보면 대부분이 30-60의 점수를 주었다.

한 60점... 왜냐하면 저도 그 60점이라는 것은 내가 창의성이 중요하고 우리 유치원 교육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것 같고 사실은 창의성 수업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사진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그 사진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활동지라든가... 사실 활동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으면 더 창의성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오늘은 내가 이 수업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어.’ 그래서 이것을 안고 가서 ‘오늘 정말 수업이 잘 됐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이 잘못 했다가보다 내가 그만큼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야기 나누기도 그렇고 뭔가 안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60점은 순수하게 내가 ‘창의성이 좋다’ 해보려고 하는 시도의 마음이고 성공률을 따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재미있었다’ 이런 것을 따질 때는 그만큼 못해주시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깎이는 것이지요. 실제 점수는 30점 정도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오수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사실 오수정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은 60점인데 실제 점수는 30점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창의성 수업을 염두하는 마음은 있으나 수업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수정 교사의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교육 수업을 하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한 계획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사실 창의적인 교수 학습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교육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창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창의적인 교수 학습을 계획한다는 것은 교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만은 계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대학 서적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연수를 찾아 다녔을 때 받았던 연수물을 한번 더 확인 한다거나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연구 학교 보고서나 자율 연수에서 나오는 그런... 안내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최아름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최아름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성 교육을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니만큼 교사는 모든 수업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을 염두 해 두고 수업을 계획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아무래도... 책을 보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막 수업에 적용을 시키지는 못하는데...음...아무래도 아직 제가 그만큼을 받아주고 끝나갈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선불리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책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학교 때 배웠던 창의성 책도 있고 또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한 책들을 보면 안에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해보니 그렇더라... 그리고 또 과학 신문 같은 것, 어린이 과학 신문 같은 것을 보면 한 란에, 일정한 란에 보면 창의성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창의성을 기르는... 기른다기보다도 창의성을 이루는 요소들을 보면 뭐... 독창성, 유창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한 가지씩이 나와요. 그럼 이번 주는 유창성을 길러준다 하면 그것에 대한 활동이 나오면 그것을 따서 한 번씩은 해 보지요. 제가 막 계획을 해서 한다가보다 거기에 있는 것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가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강조용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창의성과 관련된 책을 보면 활동적인 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쉽게 계획할 수 있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강조용 교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창의성에 대해 잘 준비조차 못하는 교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연수 자료나 시중의 다양한 교재를 보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박평은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연수 자료들도 대부분 보면 창의력 계발이라고 해서 부분 그림을 완성하게 한다면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문제 해결력이나 활동지적인 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봤고,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력이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교재...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이 좀 부족하지 않는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책자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아닌 것 같고 문제 해결을 해 낼 수 있도록 어떤 집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구안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합니다(박평온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박평온 교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제일 경력도 많고 공·사립의 경험도 많을뿐더러 앞의 연구 참여자의 비고란에도 있듯이 수업연구대회 1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시내에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로 알려진 교사이다. 경력이 많다고 창의적인 수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 자료에 대한 편협함을 깨닫기도 하는가 보다.

한 학급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교사들이 원장, 원감 선생님과 여러 동료 교사와 함께 생활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동료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료교사와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느끼는 동료애를 비롯하여 혼자 아는 것은 하나인데, 동료 교사와 나누면서 두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서로 알아 갈수 있다는 장점이 더한다. 참여자들은 모든 창의성 수업을 계획할 때 동료 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은 책을 참고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내

일 어떤 수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주임 선생님이 지금 12년차시거든요. 그분께 많이 여쭙어 봐요...(중략)... “선생님,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더 많이 끌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더 덧붙일 것... 제가 한 것에서 선생님께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래?”하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보다 더 많고, 수업도 더 잘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럼 이 책에서 같이 한 번 찾아보자.”하고 그런식으로 저희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같은 연령끼리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서로 바빠서 자주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1월 16일).

동료 교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수업 연구한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의 수업안을 참고하기도 하고 이론서를 뒤적거리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음... 평소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경력 12년, 13년 차가 되면 대부분 수업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부장 교사일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맡은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국은 그것이 수업의 질 저하로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수업 상황에 따른 융통성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오수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김빛나 교사의 경력은 5년차이고, 오수정 교사의 경력은 12년차이다. 이들의 관계를 따져보면 김빛나 교사는 자기 유치원 선배교사가 12년차 정도니깐 정말 많은 자료의 소유와 수업에 대해 베테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수정교사는 경력이 높으면 수업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의 부담감과 함께 경력에 더해진 업무과중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업무과중으로 오는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 창의적인 수업을 제대로 계획하기 어

럽다고 말한다. 동료 교사를 통해 얻는 다양한 정보의 좋은 점에 비해 업무로 인해서 서로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자신 것도 준비하지 못한 수업에 다른 사람을 돌봐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주고 여러 사람들이 가진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였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고 보다 자기만 여유 있으면 손쉽게 자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요즘에 많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터넷을 많이 뒀거든요. 사실 책보다는 인터넷이 빨리 찾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도 자료가 에듀넷이나 우리가 접속하는 에듀피아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쉽다 보니까 좀 게을러져서 그 쪽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그날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이마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도 그렇고 책보다는 다른 교사들의 아이디어나 색다른 부분을 참고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음 교사는 이어서 인터넷을 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이게 검증이 안된 거잖아요.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수준과 다른 환경이니깐...그렇게 다 소화해서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그것도 막상 시간도 안되고..어렵죠...여하튼 인터넷은 자료는 많은데 오히려

더 사용하기 애매한 것도 있어요..거긴 자료 올리면 점수 주니깐 별로 도움 안되는 자료도 올리고...나도 잘 모르지만 이걸 내가 보면 전혀 창의성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올려놓은 거 보면..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이걸 아는데...싫기도 하면서..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이마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이마음 교사가 인터넷에 관련된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다. 인터넷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냥 무작위로 자기 생각을 올려놓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업방법을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가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에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교사가 먼저 검증해 봐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보고 이론서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혼자서 하기 힘들게 되므로 이때도 동료 교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므로 제대로 된 창의성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올바른 창의성 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의 방법이 제일 힘든 방법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 풀어가기: 하긴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창의성이란 개념의 다양성과 함께, “무방법이 방법이다.”, “창의성 교육은 특정한 방법보다는 교수학습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임선하, 1993) 는 말 등은 창의성 교육방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창의성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의성 신장 방법으로 크게 패키지로 구성된 프로그램,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 수업방법, 환경조성의 방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Torrance, 1994: Cropley, 2001).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사실 수업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보다 오히려 수업을 할 때 생겨나는 어려움을 시작으로 이야기해 나갔다.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각만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장이 그렇잖아요.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지침, 유치원 원장님이 바라는 것, 질서... 뭐 이런 너무 틀에 조금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 틀을 많이 못 깨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내가 창의성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물었을 때... 노력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김일재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그리고, 참여자들은 주로 아이들과 이야기나누기, 꾸미기 집단토의나 동화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이나 대답과 같이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했다.

저는 그냥 평소에 딱 ‘창의성 수업이다’ 이렇게 따로 떼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소들이 숨어들어 가도록 노력하며 수업을 하지요.. 그러니깐 보통, 그냥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동화를 들려주고 일상생활에서 할 때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보다는 뭐 동화를 들려주면 그 다음 이야기를 꾸며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주인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어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도구를 가져다 제시하면 바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물어 본다거나 항상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보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해 보게 하는 편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흥미를 있어 한다면

그런 방법을 이끌어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편이
요(서운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요리
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교사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 노력하고 연구해야 맛있는 음식의 결
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너무 과학계 요리를 하면 타게 될 것이고, 너무
일찍 꺼내버리면 덜 익을 것이고..이 과정을 잘 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참여자들은 수업할 때의 어려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발문이 어려운 것들...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발문도 있지만,
제가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곤충에 대해서 “선
생님 이거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
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면 “어 그래...
어 그래...?” 그러고는 제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중략)...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어디까지의 발문을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아이
만 그렇다고 계속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저희가 사실 연수 받아오는 그런 창의성 교육하고 유치원
실정하고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김빛나의 이야기, 2008년 1월 16
일).

어느 누가 아이들과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을
까? 교사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어려움인 것 같다. 교사가 창의성에 대
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수업할 때도 질문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
지만, 창의성 교육자체를 김빛나 교사의 말처럼 어디까지 수용하고 받아들
여서 질문을 해야 하는 지 어렵다는 것이다. 연수에서 들었던 기억을 되살
려 수업에 적용해 보아도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 또한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교사의 질문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꼭 톡톡 튀는 듯한 아이를 창의적이라고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수업에 방해된다고 제지를 시켜야 할지 난감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

우선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만약에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아~”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아이들이 갈수록 창의성을 많이 키워주는 분위기가 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 왜 평범한 애들 속에 있으면 수업이 문안하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너무 톡톡 튀는 애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막 하면 그 애들을 다 관리해서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전체 수업 분위기 상도 힘들고... 그런 면에서 교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위의 두 이야기처럼 교사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어느 정도 아이들을 수용해 줄지에 대한 한계선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창의성을 놓고 보면 정말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비단 위의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중단한다면 혹시라도 아이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아이가 이로 인해 창의성은 뒤로한 채 교사에게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지만,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톡톡 튀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교사의 융통성을 요하는 경우의 이야기이지만, 경력이 없는 초임 교사도 많을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이용하거나 글자·그림이나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잘 못하고 있지만..음... 동극 활동류... 아이들의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물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화 구연도 마찬가지이고 동화 구연하는 것도 표현력에 있어서 조금 창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지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니면 “우리가 운다..” 아니면 “목욕탕에 갔을 때..” 뭐 이런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요. 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자주 하기는 어려워요 (김잎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그리고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자주 하는 동극, 신체활동은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의성이 키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동극이나 신체 표현활동 등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가서 진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되어야 보다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교사는 환경적으로인 준비의 어려움과 함께 수업의 구조도 머릿속에 잘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수업은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잎새 교사처럼 수업을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만들기, 꾸미기, 관찰하기 등은 유아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했다. 주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만들기를 하거나 꾸미기를 할 때 주로 아이들이 더 잘 표현하도록 돕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성 수업을 잘 하려고 아이들의 한 학급당 인원이 너무 많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그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 28명의 개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요? 그 28명이 다 제 각각인데 아무리 근사치로 묶는다고 해도 여러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독특성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중치를 따라서 중간을 따라 간다고 해도 정말 너무 독특한 아이들이 많이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어울려서 하게끔 만드는 게 그 아이... 과연 진짜 우리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 큰 아이가 이긴다고 나머지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저 따라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교사가 봐 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 생각을 잘한다고 조금 더 도와준다 생각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는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그러니깐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활동할 수 있는 창의성 관련 활동지를 사용하잖아요..창의성 수업은 창의성 활동지..라고 말할 만큼 많이 쓰고 있다 싶은데...거의 그렇지 않을 까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김우정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되물었다. 몇 명이 걱정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만 5세 기준으로 뭔가 하고나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의 18명 정도라고 했다. 아이들의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다 하다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 또한 창의성 수업 연구에 큰 골치 거리인 셈이다. 아이들마다 수준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창의성이 활동지 하나로 풀어 나간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이들을 일일이 다 쫓아 다니며 그들의 개성대로 발달수준 대로 창의성을 높여주기도 뭐하고..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활동지 제시하고 활동지 그림그리거나 글자 쓰기를 통해 창의성 교육

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김우정 교사는 창의성 연수에서 들은 것들을 실제 유치원에서 교육에 적용시켜 보려고 해도 현장의 요구와도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유치원에서 창의성 수업할 때 연수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연수를 받을 당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재미는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말은 걸고 있는데 정작 수업에서 이게 창의성과 어떤...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면 어렵다든가 아니면 ‘창의성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수업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워낙 창의성이 흔하다... 아니 흔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이야기 되다 보니까 너무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연수도 좀... 우리 저번에 한 번 했던 것은 ‘이게 창의성이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신사랑 교사는 유치원 여건상 제대로 창의성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교실도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애들 보고 뛰어라 하고 싶고, 벽에도 낙서도 해봐라 하고 싶고, 책상에도 마음껏 낙서해라고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한 해 쓰고 버릴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낙서를 하라고 종이를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아이들은 부족한 거예요. 일 년에 한 두 번씩 생각의 나무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 벽에다 낙서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아서...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 하나를 두고 미술 같은 것도 옷 다버려가면서 물감 칠하고 그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여건상 어렵잖아요. 원장 원감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두렵기도 하고..뭐 제 유치원도 아니니깐..아기 낳으면 방 하나를 그렇게 하려구요(신사랑의 이야기, 2008년 2월 12일).

창의성 교육에 대해 알고 나름대로 풀어가고 싶지만 그것들을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신사랑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예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유치원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역으로 들려왔다.

참여자들은 정작 수업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창의성 수업하기에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다. 이는 그만큼 창의성 교육을 계획하고 수업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희망으로 나아가기: 유치원 교사들의 희망

교사라면 누구든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최고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요구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들어보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위해 한 발자국씩 희망을 밝아보기를 원한다.

(1) 실제적인 연수기회 확대

작년에 6지구 연수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일주일에 1번씩 해서 총 네 번의 창의성과 관련된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연수를 들었을 때 저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굳이 가슴에 와 닿고 생각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연수 받는 교사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현장에 적용하려고 해도 별로 그런 것도 딱히 없고 해서 첫 시간에만 조금 잘 듣고 그 이후엔 제대로 안 들었어요 (신사랑의 이야기, 2008년 2월 12일).

그리고 신사랑 교사는 연수하는 강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항상 교육청 연수를 가거나 해도 늘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이 오세요. 그런데 솔직히 원장님하고 교수님이 오셔도 현장에서 옛날에 있었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것과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그런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하는 연수는 말도 너무 어렵고요. 저는 그냥 그런 교수님들한테 책 보는 것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의적으로 키우신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키운 어머니들... 그렇게 하라면 저는 우리반 어머니 한 명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중략)... 창의성 연수 때 원장님, 교수님 말고.. 차라리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로 키운 일반 주부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신사랑의 이야기, 2008년 2월 12일).

위의 이야기를 보면 창의성 연수에 오는 강사님을 보면 거의가 대학교수님이나 아니면 원장 원감 선생님들이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운 학부모의 연수가 오히려 교사들의 실제적인 연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강사가 오더라도 자기의 한 아이를 키운 예와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보아야 하는 그런 유치원의 실정이 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 만큼 기존의 연수가 현실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기존의 창의성 연수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유창성이다, 융통성이 어떻다, 창의성의 구성요소는 어떻다, 어떤 학자는 창의력을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연수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번 구상해 보아라든지 그런데 대한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슨 가드너의 무슨 이론이 어
떻고 저떻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들었고 그다음에 창의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지가 어떤 것이 있고 이 정도를 들은 것이지 일
반적인 아이들의 창의력을 진단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연수는 들은 기
억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 활동 방법
이나 교사의 발문 방법 조금 언급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교사
가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아 저렇게 하
면 정말 창의력이 키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연수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박평온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참여자들은 창의성에 대한 교사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연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아이들의 창
의성이 신장되더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교사가 먼저 창의성의 가질 수 있
도록 교사 자신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연수
가 너무 원론이 치우쳐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게끔 한다. 그리고 일반적
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이 다 초등학교에 준해서 발표하는 연구며 사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창의성 수업이니만큼 앞서서
듣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와 재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교
사들은 연수를 연수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용해보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었다.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이 잘 반영 되어서 창의성 교육에 갈급
한 교사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 유치원 관리자와 학부모 연수 기회제공

창의적인 교사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을 인적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의 소신이나 마인드는 그 유치원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원장, 원감 선생님이 창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에 대해 오히려 오해할 소지가 있을뿐더러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더 많은 행사와 눈에 보이기 위한 것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창의성 교육에 대해 서로 앉아서 의논하고 연구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볼 때는 나름 창의적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원감 선생님, 원장님이 들어와서 그 어수선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차별하지 못하고 기본 생활 습관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해요..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그것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냈을 때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까? 그런 부분에서 경력이 점점 쌓이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깐 우리 교사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원장, 원감 선생님도 함께 이론적인 연수가 아니라 교사와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김일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모든 교육은 가정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참여자들은 이야기했다. 교사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니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에 함께 노력한다면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의 갈등을 조금씩 좁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저희 반에 창의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성향이냐면 아이들과 대화도 잘하고 상호작용이 많고 아이 의견을 존중해주는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도 좀 많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창의성이 더 발현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반에 지금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도 엄마가 정

말 친구처럼 물론 지킬 것은 지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럴 경우 같으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대기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내고 “집에서도 이렇게 해봤어요.”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의견 존중을 많이 받는 아이가 저는 창의적인 것 같아요(김우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학부모들에게 창의성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우리 교사들만 잘 한다고 되는건 아닌데..어쩌다가 유치원에서 연수를 한다 할지라도 워낙 바쁜 분들이 많아서...요즘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가 있어도 적은 인원 몇 명도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국가에서 21세기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함께 도와줄 방법이 없나 몰라요(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유치원에서 1년에 한 두번 학부모 연수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한 유치원 당 5-6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시간 내기 어려워하는 학부모를 오히려 유치원에서 부탁을 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작년에 참석한 사람이 올해 중복해서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이니깐 연수의 기회가 생겨도 회사를 접어두고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서 연수를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껏해야 가정 통신문에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게 부모교육의 최선책 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박미소 교사의 이야기처럼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창의성 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을까? 국가 정책으로 각 회사의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에게 자녀들을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연수를 통해 바쁜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와 집에 돌아와서 한 두가지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그리고 예비 학부모들에게는 다음 자녀를 창의적으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도록 할에 해준다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본다.

(3) 유아발달에 적합한 창의성 전문자료

대부분의 창의성 교육과 관련지어진 연수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다 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초등학교 내용을 잘 이해해서 유치원 수준에 맞추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속의 교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저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깐 또 다른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수 자료들도 대부분 보면 창의력 계발이라고 해서 부분 그림을 완성하거나 문제 해결력이나 활동지로 풀어가는 자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 그로고 보면 정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주 창의력에 대해서 활동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자료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그때도 창의력 연수 이런 것 한번 들어보면 유아기에 적용하기 애매한 그런 어떤 초·중등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두 가지를 합쳐보는 것, 재구성해 보는 것, 해체해 보는 것 이런 활동들은 들은 기억이 있고 유아기에 아주 적합한 또 발달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방법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박평온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유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어느 누군가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제와 단원에 맞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교사 한명도 현실에 맞는 교재를 찾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또한 유치원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교사들로부터 나온다면 교사들의 요구를 잘 반영 시켜 줄 것 같은데, 현재 교사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무리가 아닐지 생각해 본다.

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애를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 창의성이 뭔지 저조차도 어렵듯이 알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거나 방법이 있다거나 이렇게 또 의외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체계적인 연구나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조금 더 나와서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연수가 조금 더 만들어져서 교사들에게 제공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서온정의 이야기, 2008년 1월 12일).

창의성 교육을 요하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료와 방법들이 꼭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유치원 현장의 교사들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아 창의성 전문자료개발팀을 이끌어 간다면 그 교사는 업무 과중으로 역효과를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 자료개발을 위해 유치원 교사들의 시간과 공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연구에 임하게 해준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4) 유치원 실태파악하기

유치원의 아이들의 한 학급당 인원은 현재 2008학년도 기준으로 만 3세 18명, 만 4세 26명, 만 5세 28명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준일 뿐 더러는 그 숫자를 넘기기도 한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과 유치원의 업무가 많다는 것은 비단 창의성 교육에만 국한 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숫자와 과중 업무의 시달림이 창의성 교육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 기본적인 수업에도 충실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창의성 수업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도 이 아이들을 다 평가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아침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도 사실 차를 타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다른 일을... 전체 일을 불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는 자유 선택 활동 시간 정도 되어야지 개별 티칭(teaching)이 가능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업무들도 너무 많아서 과연 창의성을 유치원은 창의성 수업을 한다... 우리 유치원은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창의적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행사도 너무 많아요. 그것 말고 딱 틀에 정해져 있는 것 있잖아요. 보세요... 하루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활 수업 같은 것... 영어도 매일매일 들어오고 거기에 한자, 수학 다른 수업들을 다 빼져 버리면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도 부족하고, 교사의 업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창의성을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들 같으면 조금 부산한... 이라든지 떠들고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도 다 용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몬테소리 교구, 몬테소리 유치원이라고 하면 정적인 활동이나 정적인 것을 조용한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기 전이라서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때 그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유치원 현실속에서는 사실 창의적인 수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김잎새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김잎새 교사는 위의 이야기의 중간 쯤 할 때 눈물이 글썽 거리더니 이야기하고 나서는 기어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유치원 현실을 이야기하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어려움과 서러움 때문에 북받치는 눈물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잎새 교사뿐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아이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 다

챙겨야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무슨 행사가 그리도 많은지 돌아서면 행사 준비하고 또 돌아서기 무섭게 다음 행사가 기다리고 있고...그러다 보니 교사도 사람인지라 행사가 많아서 늦게 마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아이들에게 속상함을 풀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어느 순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여유를 가지기도 힘들다고 한다.

일단 창의성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나 어려운 사항.. 애로 사항은...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창의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연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한 점은.... 일단 교사 대 유아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유아의 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 유아에 대한 뭐... 호기심이나 그 아이에 대한 특성, 흥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필요한, 즉시즉시 필요한 도움, 조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환경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과중한 업무와 많은 유아의 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말로만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지..진짜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경감과 아이들 수를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유치원은 서로 경쟁하다 시피 하는 보이기 위한 행사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최아름의 이야기, 2008년 2월 15일).

최아름 교사는 유치원 현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김익새 교사와는 정 반대로 목소리가 점점더 커지는 듯했다.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을 유치원, 교육계와 국가적으로 모두 알고 함께 창의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기에 꼭 필요한 삼박자는

창의적인 교사, 창의적인 학부모, 발달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된다면 이 또한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한 시대의 어른으로 살아가며 이들이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또 다른 삼박자가 될 것이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들을 키워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큰 사명을 띄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창의성 교육에 대한 요구에 이어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신들 스스로 노력하며 연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창의성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연수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교사 스스로가 노력하며 연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인지 생각해보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교사들이 우선은 이론적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아니까... 그런 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교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교사들끼리도 많이 의사소통이 되면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나 아이들 창의성 키워주는 그런 교육 방법... 그런 교류가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슨 아이들의 그런 소모임이나 그런 것이 조금 이루어지면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렇더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꼭 참여하면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박미소의 이야기, 2008년 1월 23일).

교사들은 창의성 교육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싶어도 환경이나 상황들이 허락하지 현실에 대해 비판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대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실제적인 연수가 주어진다면 바쁜 생활 가운데에

서라도 연수에 참여하고, 교사들이 서로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창의성 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V. 이야기를 정리하며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 창의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11명의 공·사립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는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직접 창의성 교육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로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유아의 창의성의 의미와 창의성 교육의 의미,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 요구들에 대한 의미로 나누어 질적 분석하였다. 내러티브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형식으로 보여 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이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 내러티브를 통해 교사들의 내적 언어를 자연스럽게 알기 쉬운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담아내었다.

많은 이야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의 의미,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교사의 무지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경험 자체는

총체적이고, 넓은 범위로 비분석적이지만, 경험을 이야기적 형태로 구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경험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가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유아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창의적인 교수 방법에 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구본숙(2004)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을 단순히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을 유의미하게 연결하여 이어지는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혼동과 무질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박민정, 2006). 이렇듯 Connelly와 Clandinin(2000)이 말한 것처럼 내러티브 탐구는 무질서한 경험 세계의 모호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엮어 이해 가능한 의미 구조를 생산하는 해석학적 과정으로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이야기는 교사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므로 유아 창의성 교육의 이해에 대해 더 큰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내러티브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경연(1999)은 유아의 창의성 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며 교사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지 및 신념, 창의성 교육활동을 위한 창의적 교수법전개, 창의성 교육을 위한 환경제공, 확산적 질문 등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리기 위해서는 각종 창의성 교육과 연수 기회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장미정(1996)도 교사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의지, 신

님, 교사 자신의 창의적 특성, 창의적 교육환경 및 창의적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양윤정(2002)도 우선 교사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하고, 창의성 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의 구성 및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교사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Torrance(1973)도 창의적 훈련의 성공 여부는 창의적 학습과 교수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교사의 역할 가운데 교사 자신이 창의성 증진에 대한 의지나 신념과 같은 가치관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교사가 자신의 자질과 그들의 유아에 관한 관점에 따라서 유아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창의성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유치원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수업을 한다는 것이 난감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많은 인원의 유아, 유치원 현실, 이론과 실체가 다른 기존의 창의성 연수, 관리자의 인식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점으로 교사들은 유아 창의성 수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연수의 확대, 유치원 관리자와 학부모 창의성 연수 제공, 유아발달에 적합한 전문서적 및 현장의 실태 파악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당한 후속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함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중요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점은 유아 창의

성 교육을 둘러싼 문제와 어려움이 교사 개인의 문제나 그 해당 교육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국가가 21세기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임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유아들에게 있어 창의성은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창의성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몇 명의 교사들이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의 의미와 창의성 실천과정을 통해 문제점과 어려움과 아울러 요구에 대해 담아내었지만, 결코 적은 숫자에 한정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이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고 한 문화 속에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생활담을 연구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대한 사적 기록이 아닌 공적 기록이 된다(조용환, 1999).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에 이어서 사회의 이야기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국가는 함께 동참하여 한가지 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결론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를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잘하는 아이, 수업을 즐겁게 이끌어 가는 아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독특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아이, 부분적이지만 각 영역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아로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위해 유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성 발달,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자기 성취감,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서 현재 유아들이 행복하게 삶을 마련하는 데에, 그리고 유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더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교사 또한 창의적인 아이와 마찬가지로 다방면에서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특징, 즉 독특한 환경구성을 하는 교사, 재미있게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용할 줄 아는 교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창의성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의 발문이나 유아들이 나타내는 창의성에 대한 진단, 학급의 인원수, 교사를 이해 못하는 관리자, 여러 가지 행사, 과중한 업무, 유치원 여건과 열악한 환경, 이론과 실재가 다른 연수 등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고은희(2003). 교사의 창의적 인성 특성과 유아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역할 수행.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제 2007-153.
- 구본숙(2004). 유아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숙(2004).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초기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과정 연구: 내러티브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3).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간의 구조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현장작업에 필요한 열한가지 연구기술. **교육인류학연구**, 4(1): 1-43.
- 김혜선(2006). 교사되기를 향한 유치원 초임교사들의 교육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26(2), 283-308.
- 남춘단(2007).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의 내러티브 탐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영희(1995). “창의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1?”. 『세계화시대의 창의성 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 문미옥(1995). “누가 창의적인 교사인가?”. 『세계화시대의 창의성 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 박나미(2005).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관련 법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247
- 신옥순(1996). 서사와 교사의 지식, 그리고 교사 교육. **교육논총**, 13(-), 171-191.
- 양윤정(2002).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지숙(1999).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유아세계 이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2(3), 57-82.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이경연(1999). 유아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천(2005).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장미정(1996). 유아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역할 인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원 (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정민자 (2005).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창의적 특성변인간의 구조 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차미정 (1990).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방법, 교사 훈련 여부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아 (1998).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역할 분석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ajmi, M. M.(1994). Teachers' attitudes towards creativity and their instructional behaviors in the classroom. Unpublished doctoral disse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USA.

- Amabile, T. M. (1989).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전경원 역(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서울: 창지사.
- Barthesm, R.(1966). Richard Miller(Trans.) (1974).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Narrative* New York: Hill and Wang.
(Occasional Paper,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 Bomba. A. K., & Moran, J. D. (1988). The relationship of selected temperament characteristics to creative potential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a and Care*, 41, 225-230.
- Bruner, J.(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therine Kohler Riessman(2005). 내러티브 분석-질적 연구 방법 총서 1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군자출판사.
- Carr, D. (1986). *Time, Nrrative, History*. Blee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liatt, M. J., Shaw, J. M. & Sherwood, J.M (1980). Effects of training on the divergent-thinking abilities of Kindergarten children. *Child Debelopment*, 51, 1061-106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1).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D. Schon(Ed). *The Reflective tur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58-281.
-
- (1994). Personal Experinence Methods.
N. Denzin & Y.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s*. San Francisco: Sage, 413-427.

-
-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ropley, A. J.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A guide for teachers and educators*. London: Kogan page.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Goetz, E.M. (1981). The effects of minimal praise on the Creative blackbuilding of three year olds, *Child Study Journal*, 11(2). pp. 55-67.
- Guilford, J. P. (1970). *Intelligence, Creativity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San Diego: CA: R.R. Knapp.
- Gunn, J. (1982). *Autobiography: Toward a Poetics of Experi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ddon, F. A. (1986). & Lytton, H (1968), Teaching Approach and Divergent Thinking Abilit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8, pp. 171-180.
- Hallman, R. J. (1964).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Dewey's Educational Philosophy, *Educational Theory*, Vol. 14, No. 4.
- Heinzen, T. E., Mills, C. & Cameron, P. (1993). Scientific innovation potential. *Creativity Research Journal*, 6(3), 261-269.
- Hyman, R. B. (1978). Creativity in open and traditional classroom. *Elementary School Journal*, 78, pp. 266-274.

- Kokot, S. J. & Coleman, J. (1997). The creative mode of being.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 212-226.
- Lubart, T. I. (1994).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an Diego, CA : Academic.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k, A.R. & Robert, S.A. (1990). *Theories of creativity*(Eds.). Newbury Park, CA:Sage Pub.
- Mattingly, C. (1991). Narrative Reflections on Practical Actions: Two Learning Experiments in Reflective Storytelling. D. Schon(Ed). *The Reflective Tur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35-257.
- Meeker, (1978). Measuring creativity from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12(1), pp. 52-61.
- Osborn, A. F. (1963).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problem-solving*(3rd Revised Edition. Scribner's Sons).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aw, J. M. & Clatt, M. P. (1986). A model for training teachers to encourage divergent thinking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0(2), 81-87.
- Starkweather, E. (1971). Creativity research instrument designed for use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5(4), pp. 245-255.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 Tegano, D. W., Moran, J. D. & Sawyer, J. K. (1991).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8-435)
- Torrence, E. P. (1959). "Research Motes from Here and There: Current Research on the Nature of Creative Talent."
- _____ (1963). *Education and the Creative Potential*,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_____ (1973). *Is Creativity Teachable?*, Bloomington, Indiana: PDK.
- _____ (1976). *Guiding creative talent*. NY: Robert D. Krieger.
- _____ (1994). *Creativity: Just wanting to know*. Pretoria: Benedic Books.

< 부록 1 > 교사와의 내러티브 기술 결과에 대한 동의서

내러티브 기술 결과 동의서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황희숙

연구자: 오현옥

안녕하십니까?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해 선생님의 시각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심으로 이야기해주시고, 애써주신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선생님들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정확히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인터뷰한 자료를 전사해서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본인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다면 결과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달상의 미흡한 점이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자 (인)

2008년 월 일

※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Narrative)란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으로 교사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